

새로운 글쓰기로 맞선 우정의 라이벌

- 이옥과 김려 -

1. 이옥

1.1. 과거에 합격할 수 있기를!

이옥(李錡, 1760~1815)의 본관은 전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후손이다. 호는 경금자(絢錦子), 매화외사(梅花外史)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는 기상(其相)이다. 이옥 가문은 5대조 경유(慶裕)와 그의 형 경록(慶祿)이 무과에 급제하면서 무반으로 전신한 집안이다. 경유가 본처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지 못해 서자 기축(起築 1589~1645)이 대를 이었는데, 기축 역시 무과에 급제했고 기축의 아들로 이옥의 증조부가 되는 만림(萬林)도 무과에 합격했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무반으로 전신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기축이 서자라는 사실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이옥의 가문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그의 집안은 당색으로는 북인의 일파인 소북 계열이었다. 북인은 광해군대에 잠시 집권했다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함께 몰락했고, 소북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론 일색인 조선 후기에 소북이라는 출신 성분은 운신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를 위한 문장을 대방가(大方家)는 비록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과거를 준비하는 수재(秀才) 학구(學究)는 반드시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 또 이는 선비가 자신을 출세시키는 수단이니, 반평생 마음을 쓰는 토제어전(兔蹄魚箋)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뜻을 둔 지 16년에 거의 1천 편에 가까운 시가 있고, 거기에 2백 편의 변려문이 섞여 있으며, 책문은 50편을 엮었고, 부, 논, 명, 경의가 틈을 타서 번갈아 나왔다. 망령되이 스스로 한 번쯤 과거에 합격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 『문여(文餘)』, 「祭文神文」

그의 나이 25세 되던 1784년의 마지막 날에 쓴 글이다. 과거에 뜻을 둔 지 16년이 되었다고 하니 9세 때부터 과거 합격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 셈이다. 어떤 이들은 이옥의 문장에 대해 “시는 화려해야 하는데 소박하고, 변려문은 섬세해야 하는데 창고(蒼古)하고, 책문은 적절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풍부하고, 부(賦) 이하는 시원찮은 나무와 같아 비평할 것도 없다”고 품평했다. 과거 합격용 문장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곱 차례나 과거시험장에 들어갔지만 한번도 합격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대책문(對策文)을 제출해 합격을 노리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1790년 드디어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동재에 들어갔다.¹⁾

1) 노대환,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드』, 역사의 아침, 2007, 15~21쪽.

1.2. 문체반정과 이옥

경박한 문체를 순정한 문체로 바꾸겠다는 정조의 방책으로 박지원 · 남공철 · 김조순 등 노론(老論) 별열가문의 일류급 문사들도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이면에는 노론과 남인을 적절히 통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감춰져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사유체계를 위협하는 조짐들을 잠재우려는 교육정책에 가까웠다. 특히 서학의 전파는 성리학적 질서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위협적 조짐이었는데, 이승훈 · 정약전 · 정약용 · 이벽 등 남인 자제들이 천주교의 교리를 토론하고 의식을 거행하다 발각된 **추조적발사건(秋曹摘發事件, 1785)**²⁾이라든가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 · 권상연이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버린 **진산사건(鎭山事件, 1791)**³⁾은 조정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정조는 해당자를 처벌하고 천주교 서적을 불사르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로부터 문체반정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내가 일찍이 소품의 해는 사학(邪學)보다 심하다 했으나 사람들은 정말 그런지 몰랐다. 그러다가 얼마 전의 사건이 있게 된 것이다. 사학을 물리쳐야 하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소품이란 이른바 문묵필연(文墨筆硯)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어리고 식견이 얕으며 재주가 있는 자들은 일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므로, 서로 다투어 모방하여 어느 틈엔가 음성(淫聲) · 사색(邪色)이 사람의 심술을 미혹시킨다. 그 폐단은 성인을 그릇되게 여기고 경전에 반대하며 윤리를 무시하고야 말 것이다. 더욱이 소품의 일종은 명물고증학(名物考證學)으로 한 번만 변하면 사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학을 제거하려면 마땅히 먼저 소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일득록(日得錄)」⁴⁾

- 2) 1784년 북경에서 천주교에 입교하고 귀국한 이승훈(李承薰)이 이벽(李穡) · 권일신(權日身) 등과 명례동(明禮洞 : 명동)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져오다가 다음해 3월, 도박단속을 위하여 순라하던 포졸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교인들은 이승훈, 정약전(丁若銓) · 정약중(丁若鍾) · 정약용(丁若鏞) 삼형제, 권일신 부자 등 10여 명으로 이벽의 교설(敎說)을 듣고 있다가 체포되어 모두 형조로 끌려갔다. 그러나 형조판서 김화진(金華鎭)은 이들을 석방하고 김범우만 투옥하였다. 이때, 권일신은 이윤하(李潤夏) · 이충억(李寵億) · 정섭(鄭涉) 등 다섯 사람과 함께 형조에 들어가 압수한 성상(聖像)을 돌려다라고 교섭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이용서(李龍舒) 등 유생들이 적사상소(斥邪上疏)를 올려 그들을 처벌하도록 여론을 일으켰으나, 성학(聖學)이 흥하면 사학(邪學)은 자멸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정조는 김범우만을 경상도 밀양의 단장(丹場)으로 유배시켰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3) 1791년 신해년에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으로, 신해사옥(辛亥死獄), 진산사건이라고도 한다. 1791년 전라도 진산군의 선비 윤지충과 권상연이 윤지충의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가톨릭식 제례를 지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조정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조정에서는 진산군수 신사원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하였고, 그들이 사회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사형에 처했다.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가톨릭교의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을 유배시키는 것에서 끝내 더 이상 가톨릭교도에 대해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 일을 둘러싸고 신서파(信西派, 서교 신봉을 묵인)와 공서파(功西派, 서교를 정격)로 나뉘어 두 파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시사상식사전.
- 4) 1814년(순조14)에 간행된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권161~178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직제학 정지검(鄭志儉)이 국왕의 언행을 기주(記注)의 법에 따라 기록해 후일 반성의 자료로 삼자고 건의함으로써 편록되었다. 당시 사신(史臣)의 구실도 겸했던 규장각 각료들이 1785년(정조9)경부터 기록하였다. 그 체제는 문학 5권, 정사 5권, 인물 3권, 훈어(訓語)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편은 대체로 시대순으로 배열했으며, 경연 등 제반행사에서 대신과 각료, 유생들과 나눈 대화와 전교(傳敎)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조 16년(1792)에 임금의 명을 받아 이옥은 글 한 편을 지어 바치게 되었는데, 정조가 받아보니 이옥의 글은 성인의 순정한 글쓰기가 아니라 경박한 소설식 문체를 구사하고 있었다. 당시 문인들에게는 불변의 진리와의 같은 것이 ‘문장은 반드시 선진양한을 본받고, 시는 반드시 성당을 본받아야 한다(文必秦漢, 詩必盛唐)’는 것이었다. **소품체(小品體)**⁵⁾라 일컫기로 하는 소설식 문체는 사회적 소외 현상과 그러한 소재의 인물을 선호하고, 개인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특하고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특징을 지닌다. 국가와 정치, 우주와 성명(性命)과 같은 거대담론을 지향하던 기존의 고문과는 판이한 글쓰기였다. 전통적인 고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상적이고 채설(瑣屑)하기 그지없어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정조는 다시는 그런 문체를 쓰지 못하도록 경고했지만, 이옥의 문체는 고쳐지지 않았다.⁶⁾

이옥의 산문은 섬세하여 정사(情思)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의 시는 가볍고 맑아 격조가 초각(峭刻)하다. 이옥의 말은 이렇다. “나는 지금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나의 시와 나의 산문을 쓴다. 선진양한과 무슨 관계가 있고, 위진삼당과 하등 상관이 있는가?” 지금 이옥이 죽은 지 이미 5년이 된다. 우연히 상자를 뒤적다가 이것(「목토향」)을 발견하고 그가 평생 부지런히 힘쓴 뜻을 슬퍼하여 붓으로 베껴 한 권 책으로 만들었다.

- 김려, 「제목토향초본권후(題墨吐香草本卷後)」

사육문(四六文) 50수를 지어 바치라든가 매일 10편씩 열흘 동안 시 100편을 지어 바치라는 엄한 견책을 받기도 했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아예 박탈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충청도 정산현(定山縣)이라든가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에 충군(充軍)되는 조처에 취해지기도 했건만,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끝까지 고집했다. ‘충군’이란 천역(賤役)에 해당하는 군대에 편입되는 것으로, 사족에게는 치욕적인 처벌이었음에도 그러한 것이다.

1.3. 뉘우치지 않는 자, 이옥

유배지에서 거둔 이옥의 소품, 『남정십편』과 『봉성문여』

패사소품체(稗史小品體)로 한양에서 890리에 이르는 유배지 경상도 삼가현으로 쫓겨가는 여정에서도 당시의 심경이 진솔하게 담긴 글을 지어 『남정십편(南征十篇)』을 남겼고, 삼가현에 쫓겨가 있으면서도 글을 지어 『봉성문여(鳳城文餘)』를 남겼다.

나한전을 보니 나한이 오백을 헤아리는데, 눈은 물고기 같은 것, 속눈썹이 드리워진 것, 봉새처럼 둘러보는 것, 자는 것, 불거진 것, 눈동자가 튀어나온 것, 부름 뜬 것, 흘려보는 것, 결눈질하며 웃는 것, 닭처럼 성내며 보는 것.....

5) 패관소품(稗官小品)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짧은 글에 담은 작품으로, 명말청초 문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흥미를 유발하는 성격으로 인해 정조는 소품체의 문장이 갖는 문학적 기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노대환, 앞의 책, 26쪽.

6)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이고, 진실로 하나가 아니다”라는 원리를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문학 작품을 세 부류로 마련하였다. ‘전(傳)’이라고 하면서 「이홍전(李泓傳)」, 「유광억전(柳光億傳)」 등 특이한 인물의 행적을 이야기한 한문단편을 많이 창작했다. ‘소품문(小品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짧은 분량의 묘사문을 즐겨 쓰면서, 세태의 여러 면모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인상 깊게 보여주었다. 민요를 한시로 옮기기도 하고 한시를 민요풍으로 창작하기도 한 ‘민요시’를 짓는 데도 열의를 가졌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2005, 225쪽.

-이옥, 「사관(寺觀)」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어서 장차 동쪽으로 바다에 다다를 것인데, 양쪽 산이 버티고 있어 나아갈 수 없다. 그리하여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으면 동쪽으로 가고, 산이 서쪽으로 뻗어 있으면 서쪽으로 흘러 산줄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서 마치 뻗어나간 산맥의 뒤를 쫓는 듯하다. 물이 돌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떠들썩하고 벼락 치듯 부딪치고, 휘돌아 뛰어오르고, 들이받아 날뛰고 설치다가도 때때로 거둬 안온하고 정답게 흘러 길 가는 사람과 더불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옥, 「수유(水喻)」

종이가 보배이던 시대에 「사관(寺觀)」에서 나한전에 뻗뻗이 모여진 오백 나한을 지루하게 늘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모든 사물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언뜻 보아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백나한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데, 살아 숨 쉬는 인간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수유(水喻)」에서는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지닌 물이 각양각색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막혀 자신의 뜻을 얻을 수 없다는 대목에서 꿈이 좌절된 자신의 참혹한 심경을 우의(寓意)하고 있으며, 계곡 물의 노함과 돌의 의연함이 어우러져 끝내 유배지를 향해가는 자신과 여정을 함께하는 시냇물의 정겨움에 귀착하듯, 끝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심경을 담아내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근심할 만한 몸으로 근심할 만한 땅에 처했고, 근심할 만한 때를 만났습니다. 근심이란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몸으로 가면 몸을 근심하고 마음이 처하는 곳에 있으면 처하는 곳을 근심하고, 마음이 때를 만남에 있으면 때를 근심하니, 마음이 있는 곳이 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면 근심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술이 넘치는 것을 걱정하면 마음이 술잔에 있게 되고, 손을 펴서 입술을 닦는 사이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신변에 근심이 없어지고, 처한 곳에 근심이 없어지고, 때를 잘못 만난 것에 근심이 없어지니 이것이 내가 술을 마시면서 근심을 잊는 방법 이요, 술을 많이 마시는 까닭입니다.”

-이옥, 「봉성문여 소서(小敘)」

「봉성문여 소서(小敘)」에서 보듯이 삼가현에 유배되어 견딜 수 없는 근심에, 봉성지방의 풍속과 사물, 인물과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보면 닥치는 대로 글감을 삼아 글을 써야만 근심을 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이옥에게 글쓰기는 중세적 억압을 견뎌내는 삶의 근거였고, 그러한 점에서 도문합일(道文合一)을 운운하던 중세적 사대부 문인과 구별되는 근대적인 작가의 면모를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2. 김려

2.1. 비어 사건(飛語事件)과 김려

김려(金鑣, 1766~1821)의 자(字)는 사정(士靖), 호는 담정(潭庭) · 해고(海皐) · 귀현자(歸玄子) 등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그의 집안은 7대조 김제남(金悌男)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생부였던 바, 애초에는 노론 명망가의 집안이었으나 차츰 가세가 기울었다. 증조부가 신임 사화(辛壬士禍)⁷⁾에 연루되는 바람에 거의 몰락의 위기에 이르렀다가, 담정의 아버지 대(代)에

이르러 호전되었고, 경제 사정도 안정되었다. 담정의 아버지 김재칠(金裁七)은 선진과 양한(楊韓)의 고문(古文)을 좋아하고 역대 명사들의 서화를 수집하는 등 문예적 소양이 남달랐으며, 자식에 대한 교육 또한 엄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정 당대의 지체가 노론별열층은 아니었다는 점과 노론 중에서도 시파(時派)였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이념의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⁸⁾

김려는 새롭게 불기 시작한 문풍의 중심에 서서 지위와 당파를 막론하고 폭넓게 교유관계를 맺었던 트인 중세 문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벼들과의 두터운 교유로 말미암아 그의 삶 역시 힘겨워졌다. 이옥이 문체 때문에 지방으로 쫓겨나 전전하고 있을 즈음, 김려는 강이천(姜彝天, 1768~1801)의 비어 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비어 사건의 핵심은 서해의 어떤 섬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서학과도 연계된 유연비어 사건에 김려가 연루된 것은, 격변의 시대를 살며 동요하던 중세적 지식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이천은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신유사옥(辛酉死獄)⁹⁾ 때 불려와 효수되었고, 김려는 북쪽 끝인 함경도 부령과 남쪽 끝인 경상도 진해에서 10여 년에 이르는 유배생활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려는 벼들을 혈투는 자들에 맞서 그들의 글쓰기를 열려하게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자신과 문학적 교류를 함께한 이옥·김조순 등 10여 명의 글을 모아 『담정총서(潭庭叢書)』라는 책으로 엮어내었다. 김려는 이들의 동반자이며 후원자였으니, 후대 고전문학사에서는 이들을 ‘김려그룹’이라 일컫는다.

2.2. 유배지에서 거둔 김려의 시편, 『감담일기(坎窞日記)』와 『사유악부(思牖樂府)』

이옥이 영남의 삼가현에 충군되어 있을 즈음, 서울의 김려 역시 강이천의 비어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김려는 자신이 유배길에서 겪은 체험을 『감담일기』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1797년 11월 12일에 의금부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듬해 1월 11일에 유배지 부령에 도착해 꿈에 고향을 보기까지의 시편을 담아내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민초들의 궁핍한 생화상과 건강한 생활상, 변방의 풍속과 산천에 대한 다채로운 인식을 담고 있다. 그의 여정 속에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해가는 내면풍경 및 주변 인물과 사물

7) 숙종 대에 노론과 소론이 분기하여 사문(斯文)시비를 벌였으나, 경종 대에 들어 왕통에 관한 시비가 본격화됨으로써 기존의 사문시비는 충역(忠逆) 시비로 논지가 바뀌었다. 신임사화라는 용어는 당대부터 쓰였으나, 화를 입은 노론측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이다.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에 왕통문제가 개입된 것은 장희빈(張禧嬪)의 아들인 경종이 세자로 책봉되고 뒤에 왕위를 이었기 때문이다. 노론측은 장희빈이 정비인 인현왕후를 모해하였으므로 사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데 반해, 소론측은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위해 장희빈을 살려야 옳다고 주장하였다. 경종은 숙종 말년에 4년간 대리청정을 하다가 숙종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노론은 경종 즉위 1년 만에 연잉군(延礽君 :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는 일을 주도하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론측이 경종에 대한 불충(不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소론정권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8)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 413~414쪽.

9) 조선 말기인 1801년에 일어난 천주교도 탄압사건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1762)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파와 벽파의 당쟁이 종교탄압으로 발전한 것으로, 정조(재위 1776~1800) 시대에는 당쟁 완화를 위해서 각파를 평등하게 등용하는 탕평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순조(재위 1800~1834)가 어려서 즉위하자 대왕대비 김씨(영조의 비, 정조의 계조모)의 수렴정치가 행하여져서 대비의 오판으로 노론벽파의 수장 김귀주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시파를 억압했다. 시파에는 노론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인 시파에는 천주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종교탄압으로 발전하였고, 1801년 2월 22일에는 금교령이 나오게 되었다. 종교학대사전 참고.

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변화한 도시로 성장해가던 한양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변방 백성의 고난에 찬 삶이라든가, 낯선 풍속과 문물을 접촉하며 넓혀나간 인식의 심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아래는 유배의 행로가 지속될수록 하층민의 실상에 대한 애해가 깊어감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연기 피러나는 작은 마을엔	煙火不成村
초가집 겨우 몇 채뿐,	茅屋纔數區
주인이 나와 인사를 하고는	主人出門揖
길게 탄식을 하네.	感歎一長吁
“해마다 폐정으로 의식이 부족해	歲弊乏衣食
온 집안 항상 울음소리뿐.	渾室恒啼呼
어른이야 겨우 버틴다지만	丈夫有自可
어찌 어린 자식 길러낼지.	安得養衆難
귀한 손님 멀리서 오셨는데	貴客行遠臨
죽 한 그릇 진실로 없습니다.”	饘粥亮所無
“가난한 형세로 그런 것을	艱難勢固然
천한 제가 뭐라 하겠소.”	賤子焉敢誣

-김려, 「과피도고(過皮道峒)」

「과피도고(過皮道峒)」와 같은 김려의 시에서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여느 사대부의 애민의식과 달리 그들을 마주하는 시선에 유별난 따스함이 배어 있다. 유배지인 부령에 도착하여 3년간 지내면서 교유한 인물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편은 『사유악부』에 자주 발견된다.

무얼 생각하나.	問汝何所思
저 북쪽 바닷가.	所思北海湄
생각나네, 지난 겨울 만 길이나 눈이 쌓여	却憶前冬萬丈雪
온 고을 다 묻히고 용마루 부서졌지.	埋盡城中屋瓦截
새벽에 문 밀치자 꿈쩍도 하지 않아	曉起排戶戶不開
눈이 아찔 기가 막혀 문득 서글퍼졌네.	眼矚魂悸翻成哀
그새 길 뚫었는지 설령줄 소리 들리더니	忽聞鈴索通雪竇
국보가 손수 술병 들고 찾아왔네.	國輔親携白醪來
담수와 전옹도 차례로 이르러	澹叟田翁次第至
칼을 꺼내 삶은 돼지고기 썰었지.	挈刀更割熟臠臠
유배생활 괴로움 몽땅 잊게 해주어서	使我渾忘遷謫苦
미친 듯 노래하며 취하고 또 취했지.	狂歌亂舞醉更醉

신유사옥의 와중에 거듭 서울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뒤, 경상도 남쪽 끝 진해로 유배지가 옮겨졌을 때, 그곳에서 부령 시절을 그리워하며 적지 않은 시편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사유악부』이다. 290수의 시가 담겨 있는데, 부령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병영의 아전인 국보와 담수, 전옹과 술을 마시며 유배객의 설움을 달래던 정경이 잘 드러난다. 죄인이지만 서울 명문가문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보잘것없는 그들과 오랜

벗처럼 격의 없는 술자리를 나타내는 태도가 정겹게 그려져 있다.

이들 외에도 한미한 양반, 아전, 하급 무관, 농사꾼, 상인, 공인, 술집 주인, 젊은이, 어린이 등 교유한 부류가 부령의 모든 토착민을 망라할 정도이며, 인간이 간직한 아름다움, 진솔함, 순박함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부령 사람 가운데 잊지 못할 인물로 연희(燕姬)라는 기생에 대해 그리고 있는 「연꽃을 보며」는 험난한 유배생활, 특히 부사나 아전들의 감시와 모멸을 받았던 그에게 미더운 동반자로서의 기생 연희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나 있다. 『사유악부』에는 그녀에게 바치는 헌시가 많은데, 연희의 평소 언행을 「연희언행록(燕姬言行錄)」으로 기록하여 남기기도 하였다. 이는 한낱 기생에 지나지 않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남성의 타자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인정물태를 포착한 글쓰기, 또는 문학적 성취

이옥과 김려, 그들은 험난한 유배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신의 글쓰기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문장에 관한 한 머리 숙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다. 문(文)이란 도(道)를 실어 전달하는 도구라는 재도론(載道論)은 기존의 정통 사대부들의 문학관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옥과 김려는 그러한 보편적인 이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지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합할 수 없거니와,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같은 하늘이 없고, 하나의 땅도 한 곳도 같은 땅이 없다”라고 한 이옥의 말은 그러한 전복적인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의 글’로써 문학적 사명을 삼은 것이다. “대개 주자(朱子)의 문장은 그 말이 길고, 길기 때문에 자세하다. 주자의 글은 이학가(理學家)가 읽으면 담론을 잘할 수 있고, 벼슬아치가 읽으면 소차(疏筭)에 능할 수 있고, 과거시험 보는 자가 읽으면 대책에 뛰어날 수 있고, 시골마을 사람이 읽으면 편지를 잘 쓸 수 있고, 서리가 읽으면 장부를 정리하는 데 익숙할 수 있다. 천하의 글은 이것으로 족하다.” 했던 「독주문(讀朱文)」은 주자의 글이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어 창의적이고도 주체적인 글쓰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김려 역시 다양한 인물 군상과 물상(物像)을 다루어서 탈중심적 사유와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을 다루더라도 명망에 휩싸여 거들먹거리는 자들 대신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 진솔함에 주목하고, 세계를 다루더라도 관념화된 자연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물이라도 구체성에 주목했다. 인정물태(人情物態)에 대한 찡찡한 묘사는 그들이 추구한 글쓰기 전략의 요체였다.

참고문헌

- 나손선생추모논총간행위원회, 『한국문학작가론』, 현대문학, 1991.
노대환,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 역사의 아침, 2007.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